신경 쓸 일, 신경 끌 일

(이사야 8:1~22)

5.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7.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신경 쓸 일, 신경 끌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신경 쓸 일, 신경 끌 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핵심 주제로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는 남 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하는 북 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군대와 아람의 르신 왕의 군대가 앗수르에 의해서 멸절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상징하는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말을 큰 서판에 쓰게 하였습니다. '마헬살랄'과 '하스바스'는 거의 같은 뜻으로써 '급격하게 노획물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두 왕의 군대가 앗수르에게 급격하게 멸망당할 것이 운명 지어졌습니다.
한편 남 왕국 유다는 성전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 받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6~7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대상이 비유를 통해서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여호와 하나

님이십니다. 두 번째 대상은 아람 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의 왕 베가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앗수르 왕과 그의 군대입니다. 이 세 대상이 '물의 흐름'이라는 특이한 소재를 통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아(실로암) 냇물로 비유합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바깥의 기혼 샘을 발원지로 하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을 끼고 흘러서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연못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중에서 남동쪽에 있었던 연못이 실로암이었습니다. 기혼 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느리고 자그마한 냇물은 언뜻 눈에 띄지 않지만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앗수르는 언덕을 덮어버릴 만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비유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천천히 흐르는 물로 비유되신 하나님과,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로 비유된 앗수르 사이에 있으므로 그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암 물길보다는 급하지만 앗수르에 비할 바가 안 되는 물로 비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침략군을 기뻐할 수는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뻐한다'라고 하시며 이러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언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북한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이 한창 핵미사일을 실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에서 김정은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 북한에 접근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조차도 북한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침공 당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급한 물을 좋아하니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흉용하고 창일한 급물살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앗수르에게 남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 이후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선 흐름에 대해 다시 살펴봅니다.

기혼 샘에서 흐르는 작고 완만한 냇물인 실로암으로 비유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하신 분이실까요?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 실제대로 말하자면 제일 크신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 앗수르가 아무리 강대한 군대라고 한들 하나님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완만한 냇물 같은 실개천에 비유하고, 앗수르는 온 세상을 뒤덮는 흉용하고 창일한 급물살에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느낌입니다.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구 안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민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받았습니다. 또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나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번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상태가 유지되고 정착되어 있었다면 르신과 베가의 침공은 사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신경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신경 쓸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의 상황은 이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작은 시냇물처럼 느꼈고, 르신과 베가의 침공은 급물살처럼 느꼈습니다. 적들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겼고 신경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6절은 바로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르신과 베가에게 지독하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실개천으로 여기고 적들을 급물살로 여겨서 마음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힐 만큼 르신과 베가가 대단하다면 이번에는 앗수르라는 더 큰 물살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느니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채우려는 것에서 판단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이 상반되는 감정은 똑같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음을 채워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베가와 르신을 싫어하는 이유도 결국은 마음 채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가 나의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돈을 갖지 못하도록 하거나 돈을 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기쁨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의 르신과 베가에 대한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민들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를 빼앗아가려는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7장 2절에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라고 하신 것은 이 두려움도 결국은 마음 채움의 기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마음을 채워서 기뻐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니 두렵고 미운 것입니다. 선민들은 기쁨과 관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르신과 베가를 미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기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병에 걸리면 싫습니다. 이것은 병의 능력에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싫어함의 원인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병이 육체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기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좋아지는 것은 밝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없어야 좋아지는 것은 어두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쁨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또한 기쁨의 문제입니다. 가난이 없어야만 좋다는 어두운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가난하든지 가난하지 않든지 그로 인해 기쁨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됨을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나 돈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은 없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이 있든 없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러한 제목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발표된 이후로 인류가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시간과 공간도 상대적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피조세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많이 투입되면 중요하게 여겨지고, 마음이 적게 투입되거나 투입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목사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앰배서더 호텔에서 우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작은 그릇에 나오는 우동이 무려 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보신 목사님이 최고급 호텔에서 라면을 룸서비스로 시켜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라면은 고작 200~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룸서비스로 라면을 시키자 5~6만원이 나왔는데 라면 안에 전복 해삼 바다가재가 들어있었답니다.

세상에는 라면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대부분이 600~7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치가 비등비등하기에 중요하다거나 사소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먹으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라면 속에 한 마리에 십만 원하는 바다가재와 전복과 해삼도 넣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가치의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이 라면임에는 분명하나 5~6만 원을 받을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을 모아놓아도 내 마음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이러한 실용성과 효용성의 가치에 있어서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귀중한 마음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귀중한 것이 됩니다.
라면은 600원이지만 십만 원짜리 바다가재를 넣는다면, 어지간한 고급 뷔페 음식 이상의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 게임에 마음을 담았기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소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증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선민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마음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르신과 베가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것처럼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사소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냇물로 여기고 르신과 베가를 급물살로 여겼습니다.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선민들이 르신과 베가에게 마음을 주자 예루살렘 침범 사실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마음을 왜 돈에 투입합니까? 라면에 십만 원 짜리 바다가재를 풍덩 빠뜨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 없다는 라면의 상황에 왜 바다가재를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바다가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따로 먹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속초에서 홍게를 넣어 끓인 라면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합이 싫었습니다. 홍게는 홍게대로 먹고 라면은 라면대로 먹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에 불과하고, 내가 만나는 일은 지구에서 또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온 우주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들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마음을 티끌 같은 지구에서 만나는 티끌 같은 사건에 투입

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선민들의 모습입니다.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와서 당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음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용도로 쓰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끝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르신과 베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르신과 베가보다도 더 대단한 앗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르신과 베가조차 결국은 앗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쥐고 계시고, 상황에 대한 운명을 이미 결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져버릴 일들을 제일 큰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 주고 중요한 것들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띄지도 않는 실로암 실개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태를 지적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안에 있는 증거는 지구조차 사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는커녕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임마누엘의 신앙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해주셨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죄적 근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세상일들은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사소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모든 마음을 다 투입합니다.
선민들은 르신과 베가로 인해 육체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죽어도 만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육체의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을 사소하게 여기고 르신과 베가를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뻐하느니라'라는 단어를 통해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십니다. 르신과 베가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에 주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실로암 실개천처럼 사소하게 여겨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 전체라도 사소할 뿐입니다. 이 사소한 것을 붙잡는 것이 원죄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체질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만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실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끄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만 신경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